

기**타****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위원회****진정사건번호 2179/2012**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2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

(2014. 10. 7.~ 31.)

진 정 인 : 김영관 등(대리인 : 변호사 오두진)
 피 해 자 : 김영관 등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12. 3. 14.
 참 고 문 서 : 2012. 7. 25.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규정 제97호 결정
 (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4. 10. 15.
 주 제 :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구금
 절 차 쟁 점 : 주장의 입증
 본 안 쟁 점 : 양심의 자유, 자의적 구금
 규 약 조 항 :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선택의정서 조항 : 제2조

별 첨**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112차 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2179/2012 *

진 정 인 : 김영관 등(대리인 : 변호사 오두진)
 피 해 자 : 김영관 등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12. 3.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함)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2014. 10. 15.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김영관 등에 의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2179/2012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견해를 채택한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견해

1. 50명의 진정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9조와 제18조 위반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¹⁾ 오두진 변호사가 진정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실

2.1. 50명의 진정인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 징집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²⁾

김영관

2.2. 진정인은 2001. 5. 21.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6년 봄,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고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0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 7. 12. 항소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07. 10. 11. 대법원에서 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9. 30.에 가석방되었다.

김원대

2.3. 진정인은 2004. 8. 21. 18세에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11. 1. 입영 통지를 받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병무청에 통지하였다. 2009. 5. 7. 제주지방법원은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였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09. 10.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12. 24.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는 2009. 10. 22. 수감되었고 2010. 12. 24. 가석방되었다.

김정호

2.4.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2004. 5. 8.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8. 6. 19.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지하면서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는 2009. 2. 12. 수감되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상고는 2009. 4. 23. 기각되었다. 2010. 4. 30. 가석방되었다.

김중복

2.5. 진정인은 유년기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2003. 8. 16.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8. 12.의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았다. 2009. 3. 25.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09. 8. 20.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는 2009. 11. 12.에 기각되었다. 그는 2009. 11. 18.에 수감되었고 2011. 1. 28.에 가석방되었다.

김중욱

2.6. 그는 2000. 7. 30.에 침례를 받았다. 2007. 2사분기에 병무청으로부터 군복무를 할지 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07.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항소는 2007. 9. 12. 기각되었고, 2007. 11. 29.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는 2007. 6. 1.부터 2008. 9. 30.까지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1) 당해 선택의정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1990. 4. 10. 발효되었다.

2) 진정과 함께 제출된 법원의 판결은 입영기피행위는 대한민국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범죄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김지훈

2.7. 진정인은 2003. 8. 2.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11. 27.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에 그는 그의 양심에 근거하여 입대하지 않을 것을 2007. 11. 26. 병무청에 알렸다. 2008. 4. 9. 첫 공판에서 구속되었다.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2008. 7. 2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는 2008. 10. 9.에 기각되었다.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김찬우

2.8. 2003. 8. 2. 진정인은 침례를 받았다. 2007. 9. 11.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의견을 제출했다. 진정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8. 14. 부산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09. 10. 28. 가석방되었다.

김현우

2.9. 2007. 12. 22. 진정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2009. 11. 9.자로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2009. 10. 1.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았다. 2010. 1. 28.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29. 항소 기각되었고, 2010. 9. 9. 상고 기각되었다. 2010. 9. 27. 수감되었고, 2011. 11. 30. 가석방되었다.

김형철

2.10. 진정인은 2000. 12. 3.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2007. 6. 20.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2007. 11.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2. 항소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 기각되었다. 그는 2009. 1. 31. 가석방되었다.

나정민

2.11. 진정인은 2005. 11. 27. 파라과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오랜 기간의 해외 거주 후 2005. 1.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다. 2006. 12. 15. 논산훈련소로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그는 입대하지 않았다. 200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07. 10. 1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5. 15.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7. 1. 수감되었고,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남성봉

2.12. 진정인은 2001. 12. 8. 침례를 받았다. 2006. 10. 2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았고 병무청에 의해 고발되었다. 2007. 8. 14.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7.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6. 23.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9. 9. 30. 석방되었다.

남우성

2.13. 진정인은 1997. 11. 1.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대학원의 기술연구원으로 대체복무 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2007. 5. 17.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2007. 6. 14.까지 군사훈련이 포함된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6.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9.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9. 22. 수감되었고,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노아민

2.14. 진정인은 1998년경 침례를 받았다. 2007. 5. 4. 입영통지에 적시된 날에 입소하지 않아서 2007. 10. 10.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 24.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11.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었다. 2008. 1. 24.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민낙홍

2.15. 진정인은 2005. 10. 8.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4. 19. 입영통지를 받았다.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12. 30.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0.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11. 10. 17. 수감되었다.

박명균

2.16. 진정인은 2001. 7. 27.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6. 15. 진정인은 광주지방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7. 11. 30. 수감되었고 2009. 2. 28. 가석방되었다.

박성민

2.17. 진정인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이며 진정인은 1997. 7. 26.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2007. 7. 6. 입영통지를 받았다. 2008.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1.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26.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8. 2. 19. 수감되었고 2009. 5. 2. 가석방되었다.

박인범

2.18. 진정인은 2000. 11. 18.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 3. 입영통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1. 15.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8. 10. 28. 가석방되었다.

서진규

2.19. 2007. 9. 19. 진정인은 입영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전화하여 여호와의 증인임을 밝히고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진정인은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3.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8. 21.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9. 7. 28. 가석방되었다.

손우식

2.20. 2005. 7. 30.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2. 11.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1. 9. 30. 가석방되었다.

송철우

2.21. 진정인은 2005. 8. 3.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2007년 이후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에 반대해왔다. 진정인은 2007. 5. 3. 입영통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1. 29.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0.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오태양

2.22. 진정인은 7세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5세가 되어 진정인이 자원하여 침례를 받았다. 2009. 10. 12.자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2009. 9. 1.에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논산훈련소에 가지 않았다. 대신에 그의 성경에서 배운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2010. 1. 29. 진정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5. 4. 진정인은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2012. 4. 4. 형기 만료예정 으로, 2010. 10. 5. 수감되었다.

우범석

2.23. 진정인은 2000. 9. 30.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2. 22.자로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2006. 12. 27.에 받았다. 입영통지를 받고 그는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알렸다. 진정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2. 18. 진정인은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유현철

2.24. 진정인은 2001. 9. 23.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10. 5.에 받은 입영통지를 거부하고 입영일 한 달 전에 지방병무청에 입장을 알렸다. 진정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2010. 11. 1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1. 1. 1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3.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 이후 수감상태에 있다.

이건석

2.25. 진정인은 14세이던 2002. 2. 23. 여호와의 증인으로로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6.경 7. 24.자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을 방문하여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3. 13.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5. 15. 진정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1. 8.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이교운

2.26. 진정인은 6세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10세인 1996. 3. 30. 침례를 받았다. 2009. 8. 4.에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입소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 진정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6.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6. 30. 수감되었고 2011. 9. 30. 가석방되었다.

이기운

2.27. 진정인은 2002. 8. 10.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년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으로 가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3. 2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총 1년 3월을 복역했다.

이민우

2.28. 진정인은 7세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2000. 10. 8. 여호와의 증인으로로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10. 8.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8.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10. 9.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2. 15.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이민희

2.29. 진정인은 2001. 11. 29. 침례를 받았다. 2008. 2. 5.에 진정인은 입영통지를 받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서면으로 밝혔다. 진정인은 2008.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9. 26.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12.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8. 9. 26. 수감되었고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이선

2.30. 진정인은 2000. 7. 29. 침례를 받았다. 2009. 11. 10.에 입영통지를 받았고 병무청에 연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1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5.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2. 5. 수감되었고 2011. 5. 9. 가석방되었다.

이성훈

2.31. 진정인은 2001. 12. 8. 침례를 받았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 거부를 결심했다. 진정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2. 2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3. 13. 수감되었고 2009. 5.에 석방되었다.

이수빈

2.32. 진정인은 2007. 4.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12. 8.에 입영통지를 받았고 입소를 거부하였다. 그는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9.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6.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4. 9. 수감되었고, 후에 가석방되었다.

이용

2.33. 진정인은 2007. 6. 4. 입영통지를 받았고 2007. 6. 26.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답신을 병무청에 하였다. 진정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3. 2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6. 16. 수감되었고 2009. 8. 14. 가석방되었다.

이인홍

2.34. 진정인은 2008. 8. 25.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입소하지 않았다. 2009. 4. 15. 진정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7. 17.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9.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9. 4. 15. 수감되었고 2010. 6. 30. 가석방되었다.

이종현

2.35. 진정인은 2007. 4. 22.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4. 30.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자신의 양심 때문에 입소하지 않았다. 2007. 10. 26. 진정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 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5. 8. 수감되었고 14개월 후 가석방되었다.

이지운

2.36. 진정인은 1999. 1. 24. 침례를 받았다. 2006년경 진정인은 2007. 5. 8.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병역을 거부하는 결정을 병무청에 전화로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200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 2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7. 11. 14. 수감되었고 2009. 1. 30. 가석방되었다.

이태섭

2.37. 진정인은 2001. 7. 28.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 9. 13.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의 지위를 확인하고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회신하였다. 진정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1. 16. 그는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이현택

2.38. 진정인은 2001. 11. 10. 침례를 받았다. 2007. 8. 22.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다. 이후 그는 경찰서로 가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2008.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2. 13.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7. 12.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임병경

2.39. 진정인은 2003. 5. 25. 침례를 받았다. 2008. 2. 2.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성서 원칙을 따르기 위해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8. 12. 10. 진정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2. 1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4.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12. 10. 그는 수감되었고 2010. 2. 26. 가석방되었다.

임성훈

2.40. 진정인은 2006. 7. 22.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년 여름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당국에 제출했다. 진정인은 200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8.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5. 8. 그는 수감되었고 2009. 6. 30. 석방되었다.

임윤수

2.41. 진정인은 2000. 12.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년 초겨울 경 입영통지를 받았고 거부의를사를 당국에 통보했다. 진정인은 200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11.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5. 22. 수감되었다.

전준우

2.42. 2002. 8. 14. 진정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그는 2007. 3. 21. 입영통지를 받기 전에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알렸다. 진정인은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2. 1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2.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3. 31.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정기중

2.43. 진정인은 2001. 11. 16.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7. 30.까지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200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5. 22. 수감되었다.

정일로

2.44. 진정인은 16세인 2004. 3. 21.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9. 8. 18.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그는 입소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7. 6.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11.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2010. 11. 11. 그는 수감되었고 2012. 5. 14. 석방되었다.

정종민

2.45. 진정인은 2006. 12. 3.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5. 2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대 전날 병무청에 병역거부의사를 알렸다. 진정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29.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7. 21. 수감되었고 2009. 9. 30. 가석방되었다.

정철호

2.46. 진정인은 유년기부터 여호와의 증인에 속했다. 그는 2008. 5.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성경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였다. 진정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0. 3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5.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10. 6. 11. 수감되었고 2011. 8. 12. 석방되었다.

조성찬

2.47. 진정인은 1999. 1. 23. 침례를 받았다.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후, 그는 군 복무 거부를 밝혔다. 진정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7. 1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7. 15. 수감되었고 2011. 9. 30. 석방되었다.

최상영

2.48. 진정인은 2003. 5. 18. 침례를 받았다. 2007. 7.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고 병무청에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를 밝혔다. 진정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1년 3월 동안 수감되었고 가석방되었다.

최형진

2.49. 진정인은 1998. 9. 19.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 6.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2. 1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7. 12. 21.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한지훈

2.50. 진정인은 2004. 7. 31.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9. 8. 1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10.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1. 1. 2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1.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1. 11. 29. 수감되었다.

현동윤

2.51. 진정인은 1994. 7. 30. 여호와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12. 15. 입영통지를 받았고 대체복무제가 이행될 때까지 징집연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은 거부되었다. 진정인은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9. 8. 28.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11. 26.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9. 12. 3. 수감되었고 2011. 2. 28. 가석방되었다.

진정

3.1.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유래된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는 내용을 제출했다.³⁾ 또한 진정인 모두가 개별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진정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점에는 논란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3.2. 또한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구금된 것은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9조를 당사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또는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로 분류한 것과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러한 실무그룹의 판단을 최근 판결에서 확인한 것을 제출하였다.⁴⁾

3.3. 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동시에 적절한 보상 및 향후 자유권규약의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당사국은 2012. 3. 14.자 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위원회의 법리가 변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위원회의 최근의 결정이 그릇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⁵⁾ 당사국은 또한 자유권규약이 교섭되고 채택되었을 때 참가국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고 보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c)(ii)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라는 문구는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3)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 사건(1642-1741/2007)에 대한 견해(2011년 3월 24일 채택) 제7.3항 참조

4) 특히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 36/1999(터키), 24/2003(이스라엘), 16/2008(터키) 참조.

또한 바야티안 대 아르메니아간 사건(23459/03)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제65항 참조

5) 2006. 11. 3. 채택한 윤여범 및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1321-1322/2004)에 관한 견해,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2012. 10. 25. 채택한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 참조. 당사국은 위원회가 1321-1322/2004의 견해에 대한 논거를 다음에 기초하였다고 보았다: 자유권규약의 당사국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제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진정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더라도 당사국에게 특별히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제시하지 못한 점, 양심에 따른 신념과 그 표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나 안정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 국민개병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무군복무를 하는 자와 대체복무를 하는 자 사이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보편적인 점, 또 당사국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4.2. 당사국은 규약 제18조 상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가 변경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민규 등의 진정 결정 이후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신념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자유권규약 제18조 1항의 사상·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사태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주장은 납세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위원회는 당사국이 개인이 양심에 따라 보유한 신념을 밝힐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그 권리가 당사국이 대체복무체제를 도입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인이 대체복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야 하는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 역시 양심에 따라 보유한 신념을 밝힐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견해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4.3. 당사국은 강제 군복무체계 하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당사국은 2008. 11. 14. 위원회에 제출한 회신에서 이미 설명되었던 견해를 여전히 유지한다. 당사국은 군복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2008년 이후, 주로 대한민국 영토 내의 서해상에서, 해군 함선들 간의 충돌(대청해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천안함이 공격받아 침몰했을 당시 군 복무중인 해군 46명이 사망하였다. 그 이후 미사일공격과 핵 실험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체복무는 군복무에 대한 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군복무를 수행하는 자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 불공평한 간극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의 안정적 다원성 및 공공질서를 저해시킬 것이다. 현재의 안보상황, 군복무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 합의의 부재로 인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4.4. 당사국은 또한 진정인들의 자유권규약 제9조에 대한 주장은 진정인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상황과 주장된 당사국의 침해 사실 간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심리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4.5. 당사국은 만약 위원회가 이러한 진정이 심리적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본안에서 진정인들의 주장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과 제2항의 일부는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⁷⁾ 진정인들은 자의적으로 구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본적인 권리의 제한에 법적 한계를 적용한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된 것이다. 어느 진정인도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심사를 포함하여 절차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었고, 법률 지원이 제공되었으며, 자유권규약 제9조 및 제14조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당사국은 「병역법」에

6) 대한민국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7) 일반논평 8(1982)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참조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⁸⁾ 진정한 인이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받게 된 근거법률은 임의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 역시 정당하고 적법하다. 게다가 모든 진정한들은 재입대를 하지 않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을 선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만이 병역으로부터 면제된다.⁹⁾ 그러므로 만약 진정한들이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진정한들은 재입대 및 소집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다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법부는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구금은 자의적이지 않았다.

4.6.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종교 및 양심에 대한 관한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고려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당사국은 2007. 9.경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입장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사국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2012년에 시행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당사국은 위원회에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군복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요청한다.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진정한들의 의견

5.1. 2013. 7. 29. 진정한들이 제출한 의견에서, 진정한들은 당사국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유권규약 제9조에 관한 진정한들 주장의 심리적격성과 관련하여 진정한들은 개개인 모두가 실제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본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5.2. 자유권규약 제18조와 관련하여 진정한들은 자유권규약은 ‘살아있는 문서’로서 현재의 상황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사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들은 이러한 해석이 위원회의 1321-1322/2004진정에 대한 견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한다.¹⁰⁾ 나아가 진정한들은 자유권규약 제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도 제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에 관한 평가는 오로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또한 진정한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주장이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¹²⁾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한들은 신청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확립한다면 이러한 위반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관해,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 신청에 대한 평가를 민간기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¹³⁾

8) 병역법 제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 참조

10)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8.2항 참조

11) 2011년 7월 7일 바야티안 대 아르메니아간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제100항 참조

1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1993년) 제11항 참조. 1997. 10. 16. 웨스

터맨 대 네덜란드간 사건(682/1996)의 심리적격성에 관한 결정 참조

13) CCPR/CO/83/GRC 그리스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15항.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 절차*심리적격 심리*

-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이 진정이 자유권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6.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a)항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합의절차에서 심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6.3.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제5조 제2(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국내구제절차를, 이 절차가 당해 사건에서 유효한 절차이며 실질적으로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한, 이 절차를 완료했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기한다.¹⁴⁾ 위원회는 50인의 진정인들이 당사국 대법원에 병역기피 유죄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 모두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결정을 고려하여, 또한 당사국의 어떠한 반대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b)항에 의해 본 진정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6.4.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진정이 진정인들의 특정한 상황과 주장되는 당사국의 침해행위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증부족으로 선택의정서 제2조에 따라 심리적격성이 없다는 당사국의 입장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 자신들이 구금당한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므로 진정이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주목한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하여 구금된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진정인들은 이러한 구금이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진정이 자유권규약 제9조와 제18조 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심리적격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진정이 심리적격이 있다고 결정하며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 7.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활용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본 진정을 심의하였다.
- 7.2.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당사국에서 의무군복무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그 결과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형사기소와 징역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번 진정에 있어 당사국이 과거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에 대한 그들의 답변에서 제시하였던 주장, 특히 국가안보, 군복무와 대체복무간의 형평성, 사안에 대한 국가적 합의 부재 등의 주장을 되풀이한 점에 주목한다.¹⁵⁾ 위원회는 이전의 견해들에서 이러한 주장을 이미 심리하였고,¹⁶⁾ 이전의 위원회의 입장을

14) 2003. 10. 22. 채택한 P.L. 대 독일간 사건(1003/2001)의 심리부적격 결정 제6.5항, 1994. 3. 25. 채택한 A.P.A. 대 스페인 사건(433/1990)의 심리부적격 결정 제6.2항 참조.

15)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4.1항-제4.6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4.1항-제4.8항; 2010. 3. 23. 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의민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593-1603/2007)에 관한 견해 제4.3항-제4.10항 참조

16)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8.4항 참조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¹⁷⁾

7.3.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199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서 동 규약 제4조 제2항이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자유는 공공 비상사태 시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에서 이 자유의 근본적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비록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제18조에서 도출된다고 한 위원회의 이전 견해를 상기한다.¹⁸⁾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병역의무가 조화될 수 없다면, 누구나 병역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자격을 모든 개인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강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원한다면 병역거부자들이 군사적 영역 밖의,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해야 한다.¹⁹⁾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이 교육의 의무 및 납세의 의무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복무는 교육이나 납세와는 달리, 한 개인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자명한 수준의 공모행위에 연루시킨다고 본다.²⁰⁾

7.4.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진정한들이 군복무를 거부한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그들의 신실한 종교적인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며, 뒤이은 진정한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은 자유권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여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양심 및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행해지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 거부에 대한 억압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다.²¹⁾

7.5. 위원회는 군복무 거부에 대한 징벌로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9조 상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진정한들의 주장에 주목한다.²²⁾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자의적”이라는 개념이 “법에 반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성, 부정의, 예측불가능성 그리고 적법절차의 요소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²³⁾ 자유권규약 제19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²⁴⁾ 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처벌로 구금된 것도 자의적이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각각의 진정한들에 대해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한다.

17)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2항 참조

18)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8.4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3항 참조

19)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3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4항 참조

20) 2012. 3. 29. 채택한 센크 아타소이·아르다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에 관한 견해 별첨 제2장참조

21)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4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5항 참조

22) 자의적구금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의견, 2008. 5. 9. 16/2008(터키) 참조

23) 2005. 3. 17. 채택한 고르지당카 대 카메룬간 사건(1134/2002)에 관한 견해 제5.1항, 1990. 7. 23. 채택한 반 알펜 대 네덜란드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5.8항 참조

24) 1994. 7. 20. 채택한 제라야 블랑코 대 니카라과간 사건(328/1998)에 관한 견해 참조

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거, 각 50명의 진정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들은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범죄기록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포함된다.
10. 당사국은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자유권규약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 영토 내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권규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결정받은 경우 효과적이고 집행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180일 이내에 이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 견해를 공표하고 널리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첨부 1

유지 이와사와, 제랄드 뉴먼, 안자 세이베르-포, 유발 샤니, 콘스탄틴

바르제라슈빌리의 공동의견 (보충 의견)

1. 우리는 당사국이 진정인들의 자유권규약 제9조 및 제18조 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다수의견이 제시한 이유와는 다소 다른 이유에서이다. 우리는 다수의견이 2006년과 2010년에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는 제18조 제3항의 제한이 적용되는 현실에서의 신념의 표명 사례로 분석하였던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⁵⁾ 하지만 2011년 위원회의 다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관점을 변경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신념을 가질 권리의 부분으로 다루었다.²⁶⁾ 별개의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²⁷⁾ 위원회는 최근 사건에서 이 견해 제7.3항 및 제7.4항에서와 같이 절대적 접근법을 취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의 변화에 대한 다수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가 당사국의 상황에 대해 이전의 접근법을 적용한 선례와 같이,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는 데 대해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린다.

25) 2006. 11. 3. 위원회에서 채택한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1321-1322/2004)에 대한 견해, 2010. 3. 23.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의민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593-1603/2007)에 대한 견해 참조

26) 2011. 3. 24.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모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642-1741/2007)에 관한 견해 참조

27) 2012. 3. 29. 위원회에서 채택한 아타소이와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1853-1854/2008)에 관한 견해(제랄드 뉴먼·유지 이와사와·마이클 오픈라헤르티·윌터 카린의 보충의견); 2012. 10. 25. 위원회에서 채택한 김모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윌터 카알린 의원 별개의견(보충의견), 제랄드 뉴먼·유지 이와사와 위원 보충의견)]참조

첨부 2

파비앙 살비올리 위원 별개의견 (보충 의견)

1. 나는 김모씨 대 대한민국(2179/2012진정) 결정의 근거가 된 이유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 이번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2011년 이후, 정모씨 등 대 대한민국(1662-1741/2007)과 이후 2012년 결정된 아타소이와 사르쿠트 대 터키(1853-1854/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1786/2008) 진정에서 수립해온 법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 위원회의 현재의 관행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자유권규약 제4조). 또한, 이는 2011년 이전의 위원회의 법리에 따라서라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당사국은 안보 혹은 여타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제18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한은 가능했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의 진보적 발전사항을 고려하여 현재의 입장에 관한 적절한 토대를 정립하였고, 인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구의 업무는 이러한 발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²⁸⁾
4. 왜 내가 위원회의 현재 입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대신,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특히 다양한 국제연합 기구의 업무를 통해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한 ‘아타소이와 사르쿠트 대 터키’ 및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 사건의 결정 중 나의 별개의견을 언급한다. 그 별개의견에서 자유권규약의 당사국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이 부여하는 법적 이점을 강조하였다.²⁹⁾ ³⁰⁾
5. 만약 위원회가 이 사안에 있어 2011년 이전의 법리로 회귀한다면, 이는 인권보호 진보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국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들도록 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강제되는 무력분쟁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지을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6. 국제인권기구는 국제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가 스스로 이미 수립한 기준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법적 해석을 채택하면서, 당사국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보장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일 것이다.
7. 나는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제대로 선택한 법적 방향을 계속할 것이며, 위원회가 어떠한 사안에서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그 접근법은 당사국이 그들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8) 2011. 3. 24.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642-1741/2007)에 관한 견해 제 7.3항, 2012. 3. 29. 위원회에서 채택한 센크 아타소이 및 알다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1853-1854/2008)에 관한 견해 제10.4항, 2012. 10. 25. 위원회에서 채택한 김모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 제7.4항 참조.

29) 센크 아타소이 및 알다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에 관한 견해(상기 각주28 참조) 중 파비앙 살비올리 위원 별개의견(보충의견) 1항-19항 참조

30) 2012년 10월 25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 중 파비앙 살비올리 위원 별개의견(보충의견) 1항-11항 참조

United Nations

CCPR/C/112/D/2179/201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Distr.: General
14 January 2015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Communication No. 2179/2012****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2th session
(7-31 October 2014)**

<i>Submitted by:</i>	Young-kwan Kim et al. (represented by counsel, Du-Jin Oh)
<i>Alleged victims:</i>	Young-kwan Kim et al.
<i>State party:</i>	Republic of Korea
<i>Date of communication:</i>	14 March 2012
<i>Document references:</i>	Special Rapporteur's rule 97 decision, transmitted to the State party on 25 July 2012 (not issued in document form)
<i>Date of adoption of views:</i>	15 October 2014
<i>Subject matter:</i>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ensuing detention
<i>Procedural issues:</i>	Substantiation of claims
<i>Substantive issues:</i>	Freedom of conscience; arbitrary detention
<i>Articles of the Covenant:</i>	9, paragraph 1; 18, paragraph 1
<i>Article of the Optional Protocol:</i>	2

CCPR/C/112/D/2179/2012

Annex**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12th session)**

concerning

Communication No. 2179/2012*

Submitted by: Young-kwan Kim et al. (represented by counsel, Du-jin Oh)

Alleged victims: Young-kwan Kim et al.

State party: Republic of Korea

Date of communication: 14 March 2012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eeting on 15 October 2014,

Having concluded its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No. 2179/2012,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by Young-kwan Kim et al.,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ving taken into account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State party,

Adopts the following: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1.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 are 50 individuals, all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claim to be victims of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s 9 and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¹ The authors are represented by counsel, Du-jin Oh.

*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communication: Yadh Ben Achour, Christine Chanet, Cornelis Flinterman, Yuji Iwasawa, Zonke Zanele Majodina, Gerald L. Neuman, Victor Manuel Rodríguez-Rescia, Fabián Omar Salvioli, Anja Seibert-Fohr, Dheerujlall Seetulsingh, Yuval Shany, Konstantine Varzelashvili, Margo Waterval and Andrei Paul Zlătescu.

The texts of a joint opinion by Committee members Yuji Iwasawa, Gerald L. Neuman, Anja Seibert-Fohr, Yuval Shany and Konstantine Vardzelashvili (concurring) and of an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Fabián Omar Salvioli (concurring) are appended to the present views.

¹ The Optional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10 April 1990.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authors

2.1 All 50 authors are Jehovah's Witnesses, who have been sentenced to 18 months imprisonment for refusing, on the basis of their religious belief, to be drafted for military service.²

Young-kwan Kim

2.2 On 21 May 2001,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from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in spring 2006 and replied with a written statement about his religious belief and refusal to take up arms on the basis of his conscience. On 20 April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Gwangju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On 12 July 2007,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1 October 2007.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September 2008.

Won-dae Kim

2.3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at the age of 18 on 21 August 2004.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on 1 November 2007 and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decision to conscientiously object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Jeju on 7 May 2009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2 October 2009,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December 2009. He was imprisoned on 22 October 2009 and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24 December 2010.

Jung-ho Kim

2.4 The author has studied the Bible from a young age and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8 May 2004. On 19 June 2008, the author notified the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at he would perform the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On 4 December 2008,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18 months of imprisonment. His appeal was dismissed. On 12 February 2009, he was imprisoned. While in prison, h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dismissed his appeal on 23 April 2009.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April 2010.

Jong-bok Kim

2.5 The author has studied the Bible since childhood and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16 August 2003. The author did not respond to a draft notice of 12 August 2007. On 25 March 2009, the Trial Court of Changwon sentenced the author to 18 months of imprisonment. His appeal to the Changwon District Court was dismissed on 20 August 2009.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November 2009. He was imprisoned on 18 November 2009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28 January 2011.

Jong-uk Kim

2.6 The author was baptized on 30 July 2000. When he received a call from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in the second quarter of 2007 asking whether he would serve in the military, he explained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uncheon branch of Gwangju on 19 July 2007

² The court decisions provided with the complaint indicate that military draft evasion is a crime under article 88, paragraph 1,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Act.

CCPR/C/112/D/2179/2012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2 September 2007,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9 November 2007. He served his sentence from 1 June 2007 to 30 September 2008.

Ji-Hun Kim

2.7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2 August 2003. After receiving a draft notice on 27 November 2007, he inform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his decision not to enlist based on his conscience on 26 November 2007. The author was arrested during the first hearing on 9 April 2008.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on 26 May 2008.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4 Jul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9 October 2008.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November 2009.

Chan-woo Kim

2.8 On 2 August 2003, the author was baptized. He submitted notific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n 11 September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on 29 Jan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2 Ma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July 2008. He was imprisoned in Busan Jurye Detention Centre on 14 August 2008. On 28 October 2009, he was released on parole.

Hyeon-woo Kim

2.9 On 22 December 2007, the author decided to be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1 October 2009, he received a draft notice that ordered him to enter a military camp on 9 November 2009, which he did not enter. He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Ansan Branch of Suwon, on 28 January 2010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9 April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9 September 2010. On 27 September 2010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November 2011.

Hyeong-cheol Kim

2.10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3 December 2000. He received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on 20 June 2007, but he did not present himself to the camp.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Gwangju on 2 Nov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31 January 2009.

Jeong-min Na

2.11 The author was baptized in Paraguay on 27 November 2005. In January 2005, after a long period living overseas, he came back from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settled there. On 15 December 2006, he received a draft notice ordering him to report to the Nonsan Army Recruit Training Centre, which he did not do. On 20 June 2007,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18 months imprisonment.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his appeal on 10 October 2007,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5 May 2008. He was imprisoned on 1 July 2008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September 2009.

Sung-bong Nam

2.12 The author was baptized on 8 December 2001. He received a draft notice of active military service on 23 October 2006, but did not enter the camp; charges were pressed against him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on 14 August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his appeal on 17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He was imprisoned at the Busan Detention Centre on 23 June 2008 and was discharged on 30 September 2009.

Woo-sung Nam

2.13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1 November 1997. The author was part of the technical research staff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and was fulfilling his duty for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However, he received a notice to report to Chungnam Nonsan Army Training Centre on 17 May 2007 and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me for skilled industry personnel until 14 June 2007, which included military training. Due to his religious beliefs, he did not enter the military camp.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20 Dec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6 June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1 September 2008. He was imprisoned on 22 September 2008,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November 2009.

Ah-min Roh

2.14 The author was baptized in 1998. Because he did not enter the military camp on the date indicated in a draft notice of 4 May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uwon on 10 October 2007 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his appeal on 24 Januar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also dismissed on 11 April 2008. On 24 January 2008,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March 2009.

Nak-hong Min

2.15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8 October 2005. He received a draft notice on 19 April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Cheongju on 8 July 2009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30 December 2009,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3 October 2011. He was imprisoned on 17 October 2011.

Myung-gyun Park

2.16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27 July 2001. On 15 June 2007, the author informed the Kwangju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 year and 6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Kwangju on 30 Nov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He was imprisoned on 30 November 2007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28 February 2009.

CCPR/C/112/D/2179/2012

Seong-min Park

2.17 The author's parents are Jehovah's Witnesses and he became a Jehovah's Witness on 26 July 1997. He received a notice of draft for active military service on 6 July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Jeongju on 19 Febr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1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6 June 2008. He was imprisoned on 19 February 2008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2 May 2009.

In-pum Park

2.18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18 November 2000. In March of 2007, he received a notice ordering him to enlist in the army.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uwon on 14 Sept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5 November 2007,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0 April 2008.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28 October 2008.

Jin-kyu Seo

2.19 On 19 September 2007, the author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He called the Office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revealed that he was a Jehovah's Witness and that he could not fulfil his military duty.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Goyang Branch of Euijeongbu on 14 Febr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3 Ma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1 August 2008.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28 July 2009.

Woo-sik Son

2.20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30 July 2005. He received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Cheonan Branch of Daejeon on 12 November 2009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1 February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8 July 2010. He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September 2011.

Chul-woo Song

2.21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3 August 2005. He has objected to military service on the basis of conscience since 2007. He received a draft notice on 3 May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Western Seoul on 5 Octo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9 November 2007,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7 October 2011.

Tae-yang Oh

2.22 The author started to study the Bible when he was 7 years old. When he was 15, he volunteered to be baptized. On 1 September 2009, he received a draft notice for conscription on 12 October 2009; however, he did not go to Nonsan Army Training Centre, as required. Instead, he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that he would not join the army because of his Bible-trained conscience. On 29 January 2010,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Nonsan Branch of Daejeon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4 May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30 September 2010. He was imprisoned on 5 October 2010 with an expected release date of 4 April 2012.

Beom-seok Woo

2.23 The author was baptized on 30 September 2000. On 27 December 2006, he received a draft notice ordering him to enlist in a military training camp by 22 February 2007. Upon receiving the notice, he expressed his will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Daegu on 18 Febr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 Ma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0 July 2008. On 18 February 2008, he was imprisoned and released on parole on 1 May 2009.

Hyun-cheol Yoo

2.24 The author was baptized on 23 September 2001. He rejected the enlistment call for active duty delivered in May 2010 and reported his stance to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ne month before the enlistment dat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Gunsan Branch of Jeonju on 10 November 2010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4 January 2011,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March 2011. He has since been in detention.

Kun-suk Lee

2.25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23 February 2002, when he was 14 years old. In June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to join the army by 24 July. He visit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and explained his position that he could not join the army. On 8 January 2008, he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uwon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3 March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5 May 2008. He was imprisoned in Suwon Detention Centre on 8 January 2008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March 2009.

Go-woon Lee

2.26 The author has studied the Bible since the age of six and was baptized on 30 March 1996 when he was 10 years old. After having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for active service ordering him to enter military training on 4 August 2009, he reported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at he would not enlist.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Pyeongtaek branch of Suwon on 12 November 2009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 April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June 2010. He was imprisoned on 30 June 2010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September 2011.

Ki-woon Lee

2.27 The author was baptized on 10 August 2002. In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and went to the Office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express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uwon on 27 Dec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0 March 2008, and his appeal to the

CCPR/C/112/D/2179/2012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He served a total sentence of one year and three months.

Min-woo Lee

2.28 The author has received Bible education since he was seven years old and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8 October 2000.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on 8 October 2007 but he did not report for duty.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Daegu on 15 Febr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8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9 October 2008. He was detained on 15 February 2008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1 May 2009.

Min-hee Lee

2.29 The author was baptized on 29 November 2001. On 5 February 2008,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and responded by a written notification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Euijeongbu on 7 August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6 September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1 December 2008. He was imprisoned on 26 September 2008 and was released on 30 November 2009 on parole.

Sun Lee

2.30 The author was baptized on 29 July 2000. On 10 November 2009, he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he reported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stated that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eoul Central on 5 February 2010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5 April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7 May 2010. He was imprisoned on 5 February 2010 and released on parole on 9 May 2011.

Sung-hoon Lee

2.31 The author was baptized on 8 December 2001 and decided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the basis of his religious conscien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on 4 Sept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1 December 2007,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March 2008. He was imprisoned on 13 March 2008 and was released in May 2009.

Soo-bin Lee

2.32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in April 2007. On 8 December 2007, he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and subsequently reported his refusal to join the army. He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Ulsan on 29 December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9 April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0 June 2010. On 9 April 2010, he was detained and was later released on parole.

Yung Lee

2.33 The author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4 June 2007, and responded with a letter on 26 June 2007 notifying the authorities of his decision to refuse

service owing to his conscien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Cheonan branch of Daejeon on 5 Dec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1 March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On 16 June 2008,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14 August 2009.

In-Hong Lee

2.34 The author received a draft notice on 25 August 2008; however, he did not enlist in order to observe Bible teachings as a Jehovah's Witness. He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Daegu on 15 April 2009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7 July 2009,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September 2009. On 15 April 2009,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June 2010.

Jong-hyun Lee

2.35 The author was baptized on 22 April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on 30 April 2007, but did not enlist due to his conscien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Daejeon on 26 Octo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4 Januar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April 2008. On 8 May 2008, he was imprisoned and released on parole after 14 months.

Jee-woon Lee

2.36 The author was baptized on 24 January 1999. In 2006,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requiring him to report for duty on 8 May 2007, but he notified the authorities by telephone of his decision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Uijeongbu on 14 Nov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5 Januar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1 April 2008. On 14 November 2007, the author was imprisoned and released on parole on 30 January 2009.

Tae-sub Lee

2.37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28 July 2001.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on 13 September 2007, and responded with a letter confirming his status as a Jehovah's Witness and explaining the reason for which he could not carry out his military duty.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Uiseong Branch of Daegu on 16 Jan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4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On 16 January 2008,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1 May 2009.

Hyun-tek Lee

2.38 The author was baptized on 10 November 2001. On 22 August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He then explained to the police that he objected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eoul Southern on 16 Jan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3 Februar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2 June 2008. In December 2007,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March 2009.

CCPR/C/112/D/2179/2012

Byeng-kyeng Lim

2.39 The author was baptized on 25 May 2003. On 2 February 2008,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but declined to enlist in the army owing to his adherence to Bible principles.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eoul Bukbu on 10 December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0 February 2009,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3 April 2009. On 10 December 2008,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26 February 2010.

Sung-Hoon Lim

2.40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22 July 2006. In summer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and notified the authorities in writing that he would not enlist.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Central Seoul on 2 Febr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8 Ma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0 July 2008. On 8 May 2008,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30 July 2009.

Yoon-soo Lim

2.41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in December 2000.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in early winter 2007 and notified the authorities of his objection.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Euijeongbu on 25 Jan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2 Ma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3 November 2008. On 22 May 2008, he was imprisoned.

Jun-woo Jeon

2.42 On 14 August 2002,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He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efore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on 21 March 2007.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Busan on 14 August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1 December 2007,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8 February 2008. He was imprisoned on 31 March 2008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1 May 2009.

Gi-jong Jung

2.43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16 November 2001. The author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to report to a military unit by 30 July 2007 and he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Uijeongbu on 18 Jan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2 Ma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July 2008. On 22 May 2008, he was imprisoned.

Il-ro Jeong

2.44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21 March 2004 at the age of 16. After receiving a notice of enlistment for active service on 18 August 2009, he did not enlist.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Haenam Branch of Gwangju on 24 December 2009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6 July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1 November 2010. On 11 November 2010,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14 May 2012.

Jong-min Jeong

2.45 The author became a Jehovah's Witness by baptism on 3 December 2006.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on 23 May 2007 and, the day before his enlistment, he inform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District on 18 Octo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9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10 July 2008. On 21 July 2008,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September 2009.

Chul-Ho Jeong

2.46 The author had associated with Jehovah's Witnesses since he was young.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in May 2008 but refused to do military service due to his Bible-trained conscien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eoul Central on 17 September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30 October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7 May 2010. On 11 June 2010, the author was imprisoned and he was released on 12 August 2011.

Seong-chan Jo

2.47 The author was baptized on 23 January 1999. After receiving an enlistment notice from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notified of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Uijeongbu District on 15 April 2010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5 July 2010,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30 September 2010. On 15 July 2010,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30 September 2011.

Sang-young Choi

2.48 The author was baptized on 18 May 2003. In July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and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on 15 Februar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1 April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July 2008. He was imprisoned for 1 year and 3 months and was released on parole.

Hyoung-jin Choi

2.49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19 September 1998. In June 2007, he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to join the army but explained that he would not serve the army because of his religion.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Suncheon Branch of Gwangju on 21 December 2007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15 February 2008,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April 2008. On 21 December 2007, he was imprisoned and was released on parole on 30 March 2009.

CCPR/C/112/D/2179/2012

Ji-hun Han

2.50 The author was baptized on 31 July 2004. He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on 13 August 2009, but did not enlist owing to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Goyang on 23 July 2010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1 January 2011,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4 November 2011. On 29 November 2011, he was imprisoned.

Dong-yoon Hyun

2.51 The author was baptized as a Jehovah's Witness on 30 July 1994. He received a draft notice on 15 December 2007, but his request to postpone conscription to wait for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service was dismissed. The author was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by the Trial Court of Busan on 15 July 2008 because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His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was dismissed on 28 August 2009, and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on 26 November 2009. On 3 December 2009, the author was imprisoned and released on parole on 28 February 2011.

The complaint

3.1 The authors assert that the State party's refusal to recognize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under penalty of imprisonment, constitutes a viol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The authors submit that the Committee has clearly foun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 protected right deriving from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³ The authors also emphasize that it is undisputed that each one of them i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as they have each personally decided that serving in the army would be a serious breach of their Bible-trained conscience as Jehovah's Witnesses.

3.2 The authors also argue that their detention due to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violation by the State party of article 9 of the Covenant, which prohibits arbitrary detention and guarantees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The authors submit that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categorizes the deprivation of liberty resulting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or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venant a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and t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oted the findings of the Working Group in a recent judgment.⁴

3.3 The authors request that their criminal records be expunged and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hem with adequate compensat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on the merits

4.1 In its observations dated 14 March 2012, the State party expresses deep concern with the shift in jurisprudence of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characterizes as erroneous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mmittee in which it found that the State party had breached article 18 of the Covenant because it had not

³ See, inter alia,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4 March 2011, para. 7.3.

⁴ See, inter alia,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s Nos. 36/1999 (Turkey), 24/2003 (Israel), and 16/2008 (Turkey). See also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rand Chamber, 7 July 2011,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 para. 65.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⁵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when the Covenant was negotiated and adopted, participating States had expressed reservations concerning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fell within the ambit of article 18 of the Covenant. Article 8, paragraph 3 (c) (ii), of the Covenant stipulates that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ny national service required by law of conscientious objectors” shall not be included in “forced or compulsory labour”. The term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indicates that a State party may decide whether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⁶

4.2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views of the Committee on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under article 18 have been altered. Since the cases of *Min-kyu Jeong et al.*, the Committee has been interpreting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right that is inherent i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rather than as a right to freedom to manifest one’s beliefs. This new interpretation is erroneous in two respects. First, the Committee claims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n absolute right that is non-derogable even in exigencies under article 4 of the Covenant. In these circumstances, the claim of conscientious objection could be extended as a justification for acts such as refusal to pay taxes or refusal of mandatory education. Second, the Committee claims that the State party violated the right of individuals to choose whether to declare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However, if that right were violated by a State party’s failure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n it would follow that the individuals must prove their conscience in order to benefit from alternative service, which would also in turn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choose whether to declare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according to the same logic. Therefore, the views of the Committee are not 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4.3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various practical problems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under a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 The State party first maintains the views it previously explained in its response to the communication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14 November 2008. The State party would be unable to recruit enough military manpower if it acknowledged an exemption from conscription or allowed for alternative service. Since 2008, mainly in the West Sea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has been a clash between naval vessels (the naval battle of Daecheong) and 46 people serving in the navy died when the *Cheonan* was attacked and sunk. Since then, th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has intensified owing to missile attacks and nuclear tests. Moreover, alternative service would undermine social cohesion, stable pluralism in a religiously diverse society and the public order by

⁵ See communications No. 1321-1322/2004,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3 above); and 1786/2008, *Jong-nam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5 October 2012.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the Committee based its reasoning in communication No. 1321-1322/2004 on the following factors: an increasing number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that have retain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introduced alternatives to such service; the State party had failed to show what special disadvantage would be involved for it if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 18 had been fully respected; respect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manifestations thereof on the part of the State was itself an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cohesion and stable pluralism in society; it was in principle possible and in practice common to conceive alternatives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hat did not erode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conscription but rendered equivalent social good and made equivalent demands on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party had not demonstrated that the restrictions in question were necessary.

⁶ Se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Judgment, 27 December 2007, Decision 2007Do7941.

CCPR/C/112/D/2179/2012

compromising fairness in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creating unfair disparities between those engaged i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It is in practice difficult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owing to conditions such as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due to military service and a lack of consensus among democratic communities.

4.4 The State party further considers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 are inadmissible owing to a lack of substantiation, because the authors did not demonstrate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e State party's alleged violations.

4.5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if the Committee considers the communication to be admissible, the authors' claims may be reasonably rejected on the merits. Paragraph 3 and parts of 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Covenant may only be applied to criminal proceedings.⁷ The authors were not arbitrarily detained but were rather detained according to independent and fair court judgments that apply legal boundaries that limit basic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None of the authors claimed that the trial procedures were unfair, and most of the authors were investigated without deten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s, including the judge's examination of the warrant request, a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re a counsel was not appointed by the author himself, a defence counsel was assigned, legal assistance was provided and fair trials we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and 14 of the Covenant. Moreover, pursua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State party does not consid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derive directly from article 18 of the Covenant.⁸ Because the law that provides the grounds for the authors' detention owing to their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d not been arbitrarily interpreted or applied, the grounds for deprivation of liberty was also legitimate and lawful. In addition, all authors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18 months, on the basis of the courts' standard for the minimum sentence necessary for the authors to avoid re-enlistment. Only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ur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ur for at least eighteen months are subject to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⁹ Thus, if the authors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or to a suspension of execution,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would have refused enlistment or call-up and would have therefor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again. The judiciary took this into account when sentencing them to imprisonment; as such, their detention had not been arbitrary.

4.6 Finally, the State party notes that i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conside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 to religion and conscience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and in order to respect the view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announced its plan, in September 2007, to introduce a system of assigning social services to those who refuse conscription owing to religious belief, on condition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and there is no shift in this position. Thus, once such consensus is determined by way of research on public opinion and on the positions of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the State party will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particular, the

⁷ See general comment No. 8 (1982)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⁸ See article 88,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states: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or a notice of call (including a notice of enlistment through recruitment) and fails to enlist in the military or to comply with the call,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ollowing report period from the date of enlistment or c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⁹ See article 136, paragraph 1, subparagraph 2(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mplemented in 2012, contains a plan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State party requests that the Committee understand the fact that, until there is public consensus and an improved security situation, the current system of military service must be maintained.

Author'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5.1 In their comments dated 29 July 2013, the authors challenge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their claims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 the authors assert that, because it is undisputed that each author was detained, the claims should be examined on the merits.

5.2 Concerning article 18 of the Covenant, the authors assert that the Covenant should be viewed as a living instrument that must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present-day conditions and the ideas prevailing in democratic States today. The authors maintain that this interpretation is in line with the Committee's views in communications No. 1321-1322/2004.¹⁰ The authors further maintain that, because article 8 of the Covenant neither recognizes nor excludes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ssessment of that right must be made solely in the light of article 18 of the Covenant.¹¹ Moreover, the authors submit that the clai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ust be made on the basis of an objection to the obligation to use lethal force.¹² With regard to the State party's observation that the rights of a conscientious objector might be infringed during the process of applying for conscientious objection status, the authors assert that this infringement can be avoided by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eff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for applicants.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has previously recommended to "consider placing the assessment of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under the control of civilian authorities".¹³

Issues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6.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s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Human Rights Committee mu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 of its rules of procedure, decide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6.2 As required by article 5, paragraph 2 (a),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has ascertained that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procedure of investigation or settlement.

6.3 The Committee recalls its jurisprudence to the effect that authors must avail themselves of all domestic remedies in order to fulfil the requirement of article 5, paragraph 2 (b), of the Optional Protocol, insofar as such remedies appear to be effective in the given case and are de facto available to the author.¹⁴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50

¹⁰ See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 8.2.

¹¹ Se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rand Chamber, 7 July 2011,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 para. 100.

¹² See general comment No. 22 (1993) o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paragraph 11. See also communication No. 682/1996, *Westerman v. The Netherlands*, decision on admissibility of 16 October 1997.

¹³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Greece, CCPR/CO/83/GRC, para. 15.

¹⁴ See communications No. 1003/2001, *P.L. v. Germany*, decision of inadmissibility adopted on 22 October 2003, para. 6.5; and No. 433/1990, *A.P.A. v. Spain*, decision of inadmissibility adopted on 25 March 1994, para. 6.2.

CCPR/C/112/D/2179/2012

authors have all unsuccessfully appealed their convictions for draft evas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party. Taking these decisions into account, and in the absence of any objection by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is not precluded from examining the communication by article 5, paragraph 2 (b), of the Optional Protocol.

6.4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State party's position that the communication is inadmissible under article 2 of the Optional Protocol, owing to a lack of substantiation, because the authors did not demonstrate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e State party's alleged violations.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authors' argument that the communication is admissible because it is undisputed that each author was detained.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communication raises issues under articles 9 and 18 of the Covenant because it is undisputed that the authors were detained owing to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because the authors allege that this detention was arbitrary as an infringement upon their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e Committee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authors have sufficiently substantiated their allegations and declares the claims admissible and proceeds to their consideration on the merits.

Consideration of the merits

7.1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present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parties, as required under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7.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owing to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a result of which thei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account of their religious conscience led to their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The Committee notes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State party reiterates arguments advanced in response to the earlier communications before the Committee,¹⁵ notably on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equality between military and alternative service, and lack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has already examined these arguments in its earlier Views¹⁶ and finds no reason to depart from its earlier position.¹⁷

7.3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22 (1993) o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which it considers that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freedoms enshrined in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time of public emergency, as stated i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recalls its prior jurisprudence that, although the Covenant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uch a right derives from article 18, inasmuch as the obligation to be involved in the use of lethal force may seriousl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¹⁸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heres i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t entitles any individual to an exemption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such

¹⁵ See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s. 4.1-4.6;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s. 4.1-4.8; and No. 1593-1603/2007, *Eu-min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3 March 2010, paras. 4.3-4.10.

¹⁶ See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 8.4.

¹⁷ See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3 above), para. 7.2.

¹⁸ See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 8.3; and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 7.3.

service cannot be reconciled with that individual's religion or beliefs. The right must not be impaired by coercion. A State may, if it wishes, compel the objector to undertake a civili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outside the military sphere and not under military command. The alternative service must not be of a punitive nature. It must be a real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compatible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¹⁹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disagrees with this position on the grounds that the claim of conscientious objection could be extended in order to justify acts such as refusal to pay taxes or refusal of mandatory education. Howev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military service, unlike schooling and payment of taxes, implicates individuals in a self-evident level of complicity with a risk of depriving others of life.²⁰

7.4 In the present case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derives from their religious beliefs, which, it is uncontested, were genuinely held, and that the authors' subsequent convictions and sentences amounted to an infringement of their freedom of conscience, in breach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Repression of the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xercised against persons whose conscience or religion prohibit the use of arms, is incompatible with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²¹

7.5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imprisoning them as punishment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mounts to arbitrary detention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²² The Committee observes that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Covenant provides that no one may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The Committee recalls that the notion of "arbitrariness" is not to be equated with "against the law", but must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o include elements of inappropriateness, injustice, lack of predictability and due process of law.²³ Just as detention as punishment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s guaranteed by article 19 of the Covenant is arbitrary,²⁴ so is detention as punishment for legitimate exercise of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s guaranteed by article 18 of the Covenant. Consequently, the Committee also finds that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Covenant has been violated with respect to each author.

8.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cludes that the facts before the Committee reveal, with respect to each of the 50 authors,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s 9, paragraph 1; and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expunging their criminal records and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compensat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which includes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guarantee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¹⁹ See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3 above), para. 7.3; and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note 5 above), para. 7.4.

²⁰ See communication No. 1853-1854/2008,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Views adopted on 29 March 2012, Appendix, Section II.

²¹ See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note 3 above), para. 7.4; and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para. 7.5 (note 5 above).

²² Se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 No. 16/2008 (Turkey), 9 May 2008.

²³ See, inter alia, communications No. 1134/2002, *Gorji-Dinka v. Cameroon*, Views adopted on 17 March 2005, para. 5.1; and No. 305/1988, *Van Alphen v. The Netherlands*, Views adopted on 23 July 1990, para. 5.8.

²⁴ See communication No. 328/1988, *Zelaya Blanco v. Nicaragua*, Views adopted on 20 July 1994, para. 10.3.

CCPR/C/112/D/2179/2012

10. By becoming a State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the State party has recognized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venan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undertaken to guarante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y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violation has occurred. The Committee therefor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180 days,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esent Views. The State party is also requested to publish the present Views and ensure that they are widely disseminated.

Appendix I

[Original: English]

Joint opinion of Committee members Yuji Iwasawa, Gerald L. Neuman, Anja Seibert-Fohr, Yuval Shany and Konstantine Vardzelashvili (concurring)

1. We concur with the Committee's conclusion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s 9 and 18 of the Covenant, but for somewhat different reasons than those given by the majority. We believe that the majority should have adhered to the approach it employed in its Views on similar issues in 2006 and 2010, which analysed the authors' rights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n instance of manifestation of belief in practice, which is subject to limita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8.^a Instead, in 2011,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shifted its approach and treated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part of the absolutely protected right to hold a belief.^b Despite the objections of separate opinions,^c the Committee has employed this absolute approach in recent cases, including in paragraphs 7.3 and 7.4 of the present Views. We do not consider the majority's explanations for the change of analysis persuasive.

2. We do, however, conclud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provided a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denying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s the Committee had found in prior cases applying its earlier approach to the situation in this State party.

^a See communications No. 1321-1322/2004,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and No. 1593-1603/2007, *Eu-min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3 March 2010.

^b See Communication Nos. 1642-1741/2007,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4 March 2011.

^c See communications No. 1853-1854/2008, *Atasoy and Sarkut v. Turkey*, Views adopted on 29 March 2012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Gerald L. Neuman, jointly with members Yuji Iwasawa, Michael O'Flaherty and Walter Kälin (concurring)); communication No. 1786/2008,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5 October 2012 (individual opinions of Committee member Walter Kälin (concurring) and Committee members Gerald L. Neuman and Yuji Iwasawa (concurring)).

Appendix II

[Original: Spanish]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Fabián Salvioli (concurring)

1. I concur with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grounds on which it was based in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2179/2012).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the present case reaffirm the jurisprudence that has been established since 2011 in *Jeong et al. v.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642-1741/2007) and later in *Atasoy and Sarkut v. Turkey* (communication No. 1853-1854/2008) and in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786/2008), both of which were resolved in 2012.

2. The Committee's current practice is to regard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being protected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which means, in turn, that a State party may not suspend that right under any circumstance (article 4 of the Covenant). It also means that, unlike what would have been the case under the Committee's jurisprudence prior to 2011, a State party may not limi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safety or on any other grounds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if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ere to be regarded as being covered by article 18, paragraph 3, as the Committee had in the past.)

3. The Committee has laid an appropriate foundation for its present position on the issue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ogressiv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should guide the work of bodies entrusted with the task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human rights instruments.^a

4. I am not going to reiterate the many reasons why I suppor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Committee. I instead refer to my individual opinions regarding *Atasoy and Sarkut v. Turkey* and *Jong-nam Kim et al. v. Republic of Korea*, in which I discussed how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has ev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 particular,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k of various United Nations bodies. In those opinions I also weighed the legal advantages that the new approach afford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 c}

5. It would be regrettable and would run counter to the way in whic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evolved if the Committee were to revert to its pre-2011 jurisprudence in this matter. If it were to do so, then States would be in a position to find reasons to oblige

^a See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Min-kyu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4 March 2011, para. 7.3; No. 1853-1854/2008,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Views adopted on 29 March 2012, para. 10.4; and No. 1786/2008,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5 October 2012, para. 7.4.

^b See the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Fabián Salvioli (concurring) regarding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note a above), paras. 1–19.

^c See the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Fabián Salvioli (concurring) regarding communication No. 1786/2008, *Jong-nam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5 October 2012, paras. 1–11.

people to take up arms despite their convictions and even to participate in an armed conflict in which they might be forced to take another person's life.

6.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should at all times work to expand the scop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t would be illogical for the Committee to ask States parties to refrain from rolling back any of the human rights guarantees that they provide while at the same time embracing legal interpretations that reduce the scope of the standards that the Committee itself has established.

7. I trust that the Committee will continue along its well-chosen legal path with respec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that, if it adopts a new approach in this or another matter, that approach will be one that will expand the scope of human rights rather than providing States parties with excuses for infring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7월 30일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의 자	피 환부인	압 수 물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5형제2 8697호	2015압제 1248호	노민혁외 2	성명불상	2	시마노 스마트 폴프랭크 자전거	1대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분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7	하나SK카드 5521-2540-0439-3171	1매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14	BC기프트카드 9460-3100-1049-1378	1매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16	삼성카드 3762-938039-98662	1매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27	Kodak EasyShare M883	1대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28	삼성 갤럭시S2	1대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29	아이폰(모델명:A1332)	1대
2015형제 12005	2015 압제 503	박용우	불상	32	하이패스 차량단말기(엠펜 SET-500)	1대